

공화국의 거리와 마을, 일터와 가정들마다에서 화초를 가꾸는것이 일상생활로 되고 있다.

화초를 재배하면서부터 감정정서가 풍부해지고 사업에 대한 의욕과 창조적열의도 높아졌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평양시 대성구역 려명동에

꽃과 생활의 정서

사는 송영철, 김선비녀성의 가정도 사람들속에서 꽃집으로 알려져있다.

그의 집 배란다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언제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는 크고 작은 화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자라는 갖가지 화초는 온 가정의 자랑으로, 기쁨으로 되고있다.



길은 가던 사람들도 이 집의 배란대에 울긋불긋 화려하게 피어난 꽃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한참동안 서서 바라보곤 한다.

그도 그럴것이 이대가정에는 토란, 소철, 집란, 개발선인장, 부상화, 통설란과 같은 일관상식물들과 홍초, 장미, 백합, 나팔꽃, 속국화, 제라니움, 참나리, 두봉화, 함박꽃, 코스모스를 비롯한 다종다양한 꽃관상식물들이 많이 자라고있다.

꽃을 사랑한다는것은 아름다운을 지향한다는것을 말하며 화초를 재배한다는것은 곧 자기자신을 문화정서적으로 수양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고 김선비녀성은 말한다.

화초를 재배하는것은 사람들의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다.

다. 실제로 집란은 공기중에 있는 많은 양의 유해가스를 흡수정화하는것으로 하여 《독색정화기》로 불리우며 선인장류는 유해가스를 빨아들이고 전자파를 흡수할뿐 아니라 밤에도 산소를 내보내는것으로 하여 항상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해준다.

이밖에 장미, 알로에, 국화, 수선화, 만년청을 비롯하여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화초들도 많다.

이대가정에서는 화초구경을 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애써 키운 화분도 스텝없이 안겨주고 자기들이 터득한 화초재배방법도 성의껏 가르쳐주고있다.

그것은 가정을 벗어나 사회의 화목과 단합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있다.

목욕방초 우거지고 만발하는 가지가지 꽃들과 더불어 어디서나 풍만한 정서와 아름다운 생활이 활짝 꽃피고있다.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관록있는 력기강자 김은국

김은국은 4.25체육단 력기 선수로 활약하면서 국제경기 등에서 눈부신 성과를 안아온 명실노는 체육인이다.

그는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 남자력기 62kg급경기에서 순간계기와 빠른 추기, 제2기 및 력결동작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끌어올리기에서 153kg, 추켜올리기에서 174kg을 들어올려 종합 327kg을 성공시켜 세계신기록, 올림픽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2013년 까자흐스탄에서 진행된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에서 김은국선수는 남자 62kg급경기에 출전하여 끌어올리기와 추켜올리기에서 1위를 하고 종합 1등으로 금메달 3개를 쟁취하였다.

그는 2014년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남자력기경기에서 또다시 금메달을 쟁취하고 력속 새 기록을 세웠다. 남자력기 62kg급끌어올리기 첫번째들기에서 147kg을 가볍게 들어올린 그는 새로운 기록갱신에 나섰다.

그는 두번째, 세번째들기에서 152kg, 154kg을 단번에 들어올려 아시아경기대회 기록과 아시아기록, 세계기록을 갱신하였다.

추켜올리기 첫번째들기에서 170kg을 성공시킨 그는 174kg, 178kg을 력속 들어올려 2012년 런던올림픽경기대회에서 세운 기록인 종합 327kg을 328kg, 332kg으로 두차례나 갱신하고 1등의 영예를 지니었다.

또한 2014년과 2015년에 진행된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을 쟁취하여 명성을 떨쳤다.

김은국은 로력영웅, 인민체육인이다.

평양시 대성구역 립흥동일대에서 고구려시기의 유적유물들 발굴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의 학술연구집단은 평양시 대성구역 립흥동일대에서 지금까지 발굴된 유적유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1~5세기초까지의 고구려의 력사를 해명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에서는 주체80(1991)년부터 주체109(2020)년까지의 기간에 평양시 대성구역 립흥동일대에서 고구려시기의 유적유물들을 발굴고증하는 과정에 1세기초부터 고구려가 평양의 립흥동일대를 중요한 지역적거점으로 삼았으며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발전된 문화를 창조하였다는 사실을 새롭게 해명하였다.

학술연구집단은 이 일대에서 고구려시기 건물터의 일부, 2개의 고구려유물(1호, 2호), 벽돌로 축조한 1개의 지하구조물과 많은 기와조각, 질그릇조각 등을 발굴하였다.

고구려유물유적들은 대성구역 립흥동소재지에서 남쪽으로 약 2 500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있는데 발굴당시 내부시설만 기본적으로 남아있고 유물들의 우부분의 일부가 파피되어있다.

림흥동일대에서는 4개의 주주자리들이 있는 건물터와 땅을 파고 그안에 강돌을 채워넣은 2개의 배수시설과 동서길이 200cm, 남북비 150~160cm, 높이 90cm 정도의 지하벽돌구조물도 발굴되었는데 그 주변에서 여러 종류의 많은 유물들이 수집되었다.

연구집단은 발굴을 통하여 당시 고구려문화의 발전모를 새롭게 해명하였다.

1호유물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돌바둑판조각이 고구려의 바둑판으로서 세계에서 제일 이른시기에 속하는 19줄짜리 바둑판이라는 것과 한줄에 5개의 화점이 있는 고구려의 바둑판이 고려를 거쳐 조선본경왕조말까지 이어져왔다는것을 해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회는 립흥동일대에서 조사, 발굴된 고구려시기의 유적유물들이 학술적의 가치가 크다는데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비상성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에서는 유적의 가치를 평가하고 립흥동 고구려유물1호와 2호를 보존유적으로 등록하였다.



본사기자

세책소피 - 총서 《불멸의 향도》중에서 - 장편소설 《부강조선》

공화국의 4.15문화창작단에서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부강조선》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소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새로운 대고조진군길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금속공업의 주체화 실현을 위하여 불분불휴의 로고를 바치신데 대하여 생동한 예술적폭으로 펼쳐지고있다.

금속공업이 나아갈 길은 철두철미 주체화의 길이라고 천명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철생산체계화립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제시해주신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 고무된 무산광산련합기업소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광산의 현대화와 고온공기연소기술도입을 완성하였으며 그이의 유훈을 받들어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도 마침내 산소열병용광로에서 주체철을 뽑아내는 데 성공하게 된다.

주체철생산체계화립에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성과를 금속공업부문전반에 확대해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히 주신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의 세심한 지도속에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도 주체철이 쏟아져나오게 된다.

소설은 금속공업부문 로동자, 기술자들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통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이룩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합수도통룡

량강도 백암군의 합수도통룡산에서 살아가는 합수도통룡은 도룡통과의 한 종이다.

몸길이는 6~7cm, 꼬리길이는 4~5cm이며 눈은 크고 두드러졌다.

몸통색은 푸른빛이 도는 밤색이며 가운데 누런 밤색의 줄이 있다.

몸뚱에는 눈뒤에서부터 꼬리에 이르기까지 검은 밤색 줄이 세로나있고 배쪽은 연한 흰색을 띤다.

몸통이옆에는 가로로 줄홈이 13개 있다.

네다리는 비교적 길고 앞발과 뒤발의 발가락은 네개씩이다.

꼬리는 몸통보다 길고 옆으로 납작하다.

겨울에는 물속에서 겨울잠을 자고 6월 하순~7월 상순경에 물에 가는뱀모양의 알주머니를 낳는다.

알주머니의 길이는 10cm정도이며 그안에 보통 30~70여개의 알이 들어있다. 알은 7월말경에 까인다.

엄지는 물기슭의 녹초하고 그늘진 풀밭이나 나무가 섞인 곳, 돌밭이운데 살며 주로 벌레들을 잡아먹는다.

본사기자

단편소설 나의 선택 (5)

글 우향미, 그림 김윤일

나도 아버지도 어느덧 뜨거움에 젖어 어머니의 속삭임을 맡았다고 듣고있다.

이윽고 아버지가 부르는 노래소리가 울렸다. 이런 좌석이면 늘 들어오던 아버지의 지정곡 《오직 한마음》의 선율이 그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어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없었다.

어느덧 어머니의 목소리까지 합쳐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나는 결혼식날에 불렀던 그 노래가 오늘도 아버지, 어머니를 조국을 위한 길로 변함없이 떠밀어주고 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인할수 있었다.

《하긴 명희 남편이...》 하는 아버지의 말에 나는 추억의 갈래에서 깨어났다.

《얼마나 정직하고 대바른 사람이었나. 그런데 변했거던, 조국보다 먼저 자기자신과 가정을 생각했거던. 그리고 고보면 명희에게도 큰 잘못이 있소.》

《명희가 저 길로 나가면 안되겠는데 하고 생각은 하면서도 잘 도와주지 못한 제가 무슨 동무였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떨렸다.

사실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그길로 명희의 집을 찾아갔다.

《어쩌면 그럴수 있나? 좋을 땐 안해이고 나쁠 땐 남이란 소리야? 넌 우리 녀성들을 모욕하고있어.》

성이 나서 웨치는 어머니의 모습에 명희는 그저 눈물로 대답할뿐이었다.

눈물로 얼굴을 적시던 명희는 한참만에야 어머니의 두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난 왜 남편과 갈라지고 싶었나. 너무 속이 타고 자신이 저주스럽고 미워서 그랬던거야.》

《그럼 됐다. 남편의 파오는 곧 안해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라. 난 네가 진심으로 자신을 깨끗이 반성하고 남편과 함께 새 출발을 했으면 한다. 아니, 꼭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래.》

《고마워, 난 이때껏 내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런 오산이었어. 진짜 행복은 바로 너에게 있었어, 너에게.》

명희는 고개를 떨구었다. 문득 처녀시절에 명희에게 했었던 외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나도 우리 평감도 한다 하는 친리마기수였지. 우리가 재산이요, 직업이요, 인물이요 하는걸 보았는줄 아나? 그저 나라일에 국성인 사람이면 가정도 행복하게 해줄수 있다고 믿었지.》

난 지금도 이 기준이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세대가 후회없이 걸어온 인생길이 그대로 너희들, 새 세대들의 기준이 되길 바란다.》

자신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것은 행복이다. 허나 좋은 사람에게 의하여 자신이 선택되는것은 더 큰 행복이다. 오늘날 아버지는 학위학적 소유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한계 학과를 책임진 강좌장으로 사업하고있다.

어머니는 요즘에도 생기 어린 모습으로 바쁘게 뛰어나는데 항상 미소가 남실거려 온 집안이 매일매일 명절 기분이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재미있게 바라보곤 하는데 눈에서는 마르지도 지지도 않을 영원한 그런 사랑의 빛이 타오르곤 한다.

아무런 사심도 없이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려는 고결한 마음에 끌려

본사기자

흥미있는 우리 말의 유래

《고뿔》

고뿔은 원래 교와 불이 합쳐져 이루어진 말로서 감기에 걸리면 교에서 불이 나는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뒤바라지》

뒤바라지란 사찰에서 극락왕생(이 세상을 떠나 극락세계에 가 다시 태어남)을 비는 의식인 재를 할 때 불도를 가르치는 범주스님을 도와 목탁을 치고 경문을 읽는 등 여러가지 일을

《(뒤)바라지》

바라지란 사찰에서 극락왕생(이 세상을 떠나 극락세계에 가 다시 태어남)을 비는 의식인 재를 할 때 불도를 가르치는 범주스님을 도와 목탁을 치고 경문을 읽는 등 여러가지 일을

《(뒤)바라지》

바라지란 사찰에서 극락왕생(이 세상을 떠나 극락세계에 가 다시 태어남)을 비는 의식인 재를 할 때 불도를 가르치는 범주스님을 도와 목탁을 치고 경문을 읽는 등 여러가지 일을

《(뒤)바라지》

바라지란 사찰에서 극락왕생(이 세상을 떠나 극락세계에 가 다시 태어남)을 비는 의식인 재를 할 때 불도를 가르치는 범주스님을 도와 목탁을 치고 경문을 읽는 등 여러가지 일을